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비교

김 명 순(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 혜 금*(동남보건대학 보육과 부교수)

이 윤 선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2009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보육시설 편편성 기준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2월생 반편성 기준,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 기준, 동일연령 학급과 혼합연령학급 편성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시설장 398명과 교사 383명이었으며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반편성기준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결과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반편성 기준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내 1, 2월생 영유아 수는 각 연령대별로 1.7명에서 3.8명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시설장의 60%가 그리고 교사의 57.3%가 1, 2월생 영유아는 동년도 출생아와 같은 반에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보육시설장과 교사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에 대해 시설장과 교사 모두 '동일연령반에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고 이러한 보육시설장과 교사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를 다른 학급에 편성한 경우 영유아의 적응 정도에 대해 시설장과 교사 모두 영유아의 적응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이들 보육시설장과 교사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동일연령학급과 혼합연령학급 반편성에 대해 시설장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반편성(46.5%),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연령학급 편성(31.2%)의 반응을 보였고 교사는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연령학급 편성(50.7%), 연령에 따라 다르게 편성(42.6%) 반응을 보여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t=2.09, p<.05$). 그러나 혼합연령학급이 좋은 이유에 대해 시설장과 교사 모두 아래 연령의 영유아가 위 연령의 영유아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관찰하면서 학습이나 적응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 혼합연령학급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설장과 교사 모두 상이한 발달 차이를 보이는 영유아에게 적합한 지도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만 0, 1세 혼합연령학급과 만 2, 3세 혼합연령학급에 대해 시설장은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교사는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러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t=3.11, p<.01$). 만 0, 1세와 만 2, 3세 혼합연령학급 편성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시설장은 만 0세아와 만 1세아의 발달수준이 비슷하여 한 반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만 0, 1세와 만 2, 3세 혼합연령학급 편성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로 교사들은 발달수준 차에 따른 개별지도가 어려워서를 가장 많이 들었다.

본 연구결과, 보육시설 반 편성기준에 있어서 혼합연령학급 편성에 있어서 시설장과 교사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며 보육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혼합연령학급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만 2, 3세 혼합연령학급은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민간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래연령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혼합연령학급의 경우에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거나 업무부조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